

김하성, 터졌다 '그랜드 슬램'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 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 2회 말 만루홈런을 치고 있다.

항저우AG 여자축구 최종 엔트리 공개

조소현·페어 등 해외파 제외... '구단 허가 필요' 부상으로 여자월드컵 못 뛸 이만아 발탁

오는 9월 개막하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선 여자축구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공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여자대표팀 선수 22명을 발표했다. 아시안게임 여자축구는 남자축구와 달리 연령 제한이 없어 올린 벨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이 출전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아 해외파 선수들은 구단의 허가가 있어야 참가할 수 있다.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23명 최종 명단에서 5명이 제외되고, 4명이 새로 뽑혔다. 유예를 선언한 골키퍼 윤영글과 현재 소속팀이 없는 조소현, 해외에서 뛰는 이금민(브라이튼), 이영주(CIT 마드리드), 케이시 유진 페어(ITA)가 빠졌다. 반면 이만아(현대제철)를 비롯해 이

은영(고려대), 문은주(화천KSP), 최예슬(창녕WFC)이 이름을 올렸다. 부상으로 여자월드컵에 뛰지 못한 이만아는 지난해 12월 남해 훈련 소집 이후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이은영, 문은주, 최예슬은 지난 6월 월드컵 대비 최종 훈련에 참여한 선수들이다. 이중 이은영은 예비 멤버로 월드컵을 동행했다. 한편 2019년부터 벨 감독을 보좌해 호주 출신의 맷 로스 코치는 월드컵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박윤정 코치와 정유석 골키퍼 코치, 정현규 피지컬 코치는 자유롭게 아시안 게임을 함께한다. 여자대표팀은 다음 달 5일부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돼 훈련한다. 19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축구는 17개 팀이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 5팀과 2위 중 상위 3

팀까지 총 8팀이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한국은 9월22일 미얀마(원주우스포츠센터)를 시작으로 25일 필리핀(원주우스포츠센터), 28일 홍콩(원주올림픽경기장)과 E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여자대표팀은 2010년 광주우 대회부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3회 연속 농메달을 땀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대표팀 최종 명단(22명)> ▲골키퍼 = 김정미(인천현대제철), 류지수(서울시청), 최예슬(창녕WFC) ▲수비수 = 김혜리·임선주·장슬기·홍혜지(이상 인천현대제철), 심서연·추호주(이상 수원FC) ▲미드필더 = 지소연·김유지·전은하(이상 수원FC), 이만아(인천현대제철), 천기람(화천KSP), 배예빈(위덕대) ▲공격수 = 강재림·손화연·최유리(이상 인천현대제철), 박은선(서울시청), 문미라(수원FC), 문은주(화천KSP), 이은영(고려대) /뉴스스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주요시설 2026년 완공

'프로농구 KCC 홈구장' 전주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등 전주시, 2025년까지 327면 규모 공용주차장도 별도 마련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 부지에 들어설 전주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이 오는 2026년 동시 완공된다. 김인태 전주부시장은 22일 월드컵경기장 인근 전주실내체육관 조성부지를 찾아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중인 복합스포츠타운 내 각종 체육시설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 주요 체육시설을 늦어도 2026년까지 완공해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수용인원 6,000여명 규모의 전주실내체육관의 경우 보조경기장을 포

합해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27면 규모의 공용주차장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시는 전주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서는 만큼 일대가 명실상부한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KCC 홈구장 이전설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혔던 기존 전북대 실내체육관 철거 시기의 경우에도 오는 2025년 철거가 아닌 그 이후로 미뤄진 만큼 추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김욱기 기자



김인태 전주부시장(사진 왼쪽)은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전주실내체육관 조성부지를 찾아 복합스포츠타운 내 각종 체육시설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경희대 태권도팀 등 김제시 전지훈련 진행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경희대 태권도팀, 필리핀 태권도 국가대표팀, 인천동구청 태권도팀 등 8개팀 100여 명이 김제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는 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집중된 결과, 끝나무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시작으로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팀과 경희대 태권도팀을 연달아 유치해, 지속되는 폭염으로 움츠렸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 국가대표팀과 경희대 태권도팀 감독을 겸임하고 있는 정을진 감독이 이끄는 경희대 태권도팀은, 세계적인 태권도 스타를 배출해온 명실상부 국내 태권도 최고 명문대학팀으로, 하계 전지훈련을 위해 김제에 여장을 풀게 되었다. 김제시의 스포츠마케팅 노력이 널리 지만 견고한 성과를 발휘했고, 김제시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는 올 여름 전지훈련팀의 스케줄로 빠르게 채워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양평 실업선수권 女단체전 우승

고창군청 소속 유도선수단이 2023 양평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단체전 정상에 우뚝섰다. 이지연 경기지도자가 이끄는 고창군청은 최근 양평 용문국민체육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여자부 단체전 결승서 충북도청을 제치고 우승했다. 결승서 고창군청은 김이현 선수의 누르기 한판승 김혜빈 선수의 상대방기권승 김이현 선수의 모두잡기 한판



승으로 3:2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 출신 양정재, 중고역도선수권 종합 2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9회 한국 중고역도선수권대회에서 진안군 출신 양정재 선수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중고역도연맹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역도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양정재 선수는 88kg 체급에서 용상 1위, 인상 2위를 함께 251kg을 들이 올리며 종합 2위를 차지했는데 한국한강고등학교 2학년으로 역도는 취미였다가 역도스포츠클럽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김태민 진안역도스포츠클럽 회장은 "진안역도스포츠클럽 설립 1년 반 만



에 전국대회 첫 메달을 이루어낸 뜻깊은 대회였다."며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진안군의 지원에 감사하며 양정재 선수 같은 인재를 직접 발굴 및 육성해서 진안을 역도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